

총선 6개월 앞 공천 룰 '안갯속' 지역정치권 혼란

민주 개혁특위 논의 중단 일정 쫓겨 급조 우려
출마예정자들 "믿을 건 지역구뿐" 바다다치지

내년 총선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의 공천 룰은 아직까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어 지역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개혁특위가 지난 달 최고위원회의에 공천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각종 논란 양산한 채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슈퍼스타 K(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반발은 물론 안전국 민경선제나, 국민참여경선제나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 무산에 따른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이 도래하면서 공천개혁안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천정배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의 국경감사 일정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공천 룰은 아무리 빨라야 11월 초에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천 룰을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나 공천 룰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야권대통합과 야권연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권대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당헌·당규 개정과 통합 전당대회

준비 등으로 갈등 요소가 많은 공천 개혁안 논의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야권대통합이 무산되고 야권연대로 가닥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공천 룰이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야권연대 지역 등을 놓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 간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급조된 '공천 룰'을 만들지 않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같은 정치적 대주주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직전,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전격적으로 공천 룰을 제시, 후보들이 반발할 틈을 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경선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공천 룰이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당장 공천 방법론을 놓고 갖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특정 지역구가 야권연대 대상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광주에서 총선에 도전할 예정인 전직 국회의원은 "도대체 경선 룰과 야권연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갑과 을 어느 지역에 동지를 틀지 결정할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심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들은 중앙 정치권의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믿을 것은 지역 민심 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조직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늦더위속 활짝 핀 해바라기

광주·전남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14일, 광주 광산구 첨단 2동 한 휴경지에 형성된 해바라기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올 쌀 생산량 10년來 최저

작년보다 3만 감소 426만 전망...가격 상승 등 우려

집중 호우와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429만5000t)보다 3만여 t 감소한 426만t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하순부터 기상 여건이 좋아져 당초 예상했던 418만t(최소 412만 4000~최대 424만4000t)보다는 8만t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01년 이후 최소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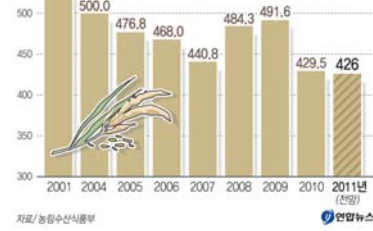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89만2074ha)보다 4.3%(3만8251ha) 줄어든 85만 3823ha에 그치면서 전체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쌀 생산량은 지난 2001년 551만 5000t에 이르렀으나 이후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2009년 491만6000t을 기록했고, 작년에 태풍 영향으로 생산량이 429만5000t에 그쳤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올해 초 불량 날씨 파동이 일면서 우수한 종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데다,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쌀값 상승도 우려된다. 다음 달이면 정부의 쌀 비축량이 88만t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내걸고 2010년산 비축미 대부분을 방출한 것도 쌀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작년보다 3만 감소 426만 전망...가격 상승 등 우려



쌀값도 지난해 12월(80kg·13만 8000원) 이후 지난 9월 15만2708원(80kg)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올랐지만 평년 수준(9월 15만5000원)에 비하면 오히려 낮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내달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리먼사태후 3년

재테크 수익률

137%↑ 금 1위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최고의 재테크 대상은 금이었다.

14일 연합뉴스가 증권사·은행 등에 의뢰해 리먼 사태 이후 3년간의 주요 투자상품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금 가격은 137.5% 뛰었다. 코스피는 32.1% 상승해 주식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채권(20.1%)이었다. 국고채 가격지수는 118.83에서 142.71로 20.1% 상승했다. 정기예금(18.2%)은 채권과 엇비슷한 성적을 냈다. 골짜기는 부동산이었다. 전국 집값은 3년 동안 7.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알림

제7회 광주일보 문학상 공모

10월 15일 원고 마감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광주일보 문학상'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합니다. '문학의 힘'을 믿으며 묵묵히 창작에 몰두해 온 작가들의 문학산치에 광주일보 신춘문예위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대상 =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 공모 분야 = 시, 소설, 동화, 동시, 희곡, 평론
- 대상 작품 = 미발표 신작 및 최근 1년 내 발표 작품
- 상금 = 창작지원금 300만원
- 원고 마감 = 2011년 10월 15일
- 제출할 곳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 '광주일보 문학상' 담당자 앞 메일 bigkim@kwangju.co.kr

光州日報社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한국유방건강재단 AMOREPACIFIC CORPORATION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1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1년 10월 9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월드컵 경기장 ㉠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동시 실시

종목 10Km / 5Km

참가비 10,000원 ㉠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campaign.com
㉠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메뉴에서 '핑크리본 마라톤' 클릭
하위 메뉴 '사랑마라톤 참가신청' 클릭하여 약관 동의 후 신청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스카프

후원 | 한국유방암학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 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협찬 | HERA, 케토름, 르까프